

50년 시어머니 봉양 윤학남씨 국민훈장목련장

사랑과 희생으로 위암 남편도 돌봐

먼저 이해하고 배려해야 가정 평화

윤학남(여·66·용당동·사진)씨가 지난 8월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40회 어버이날 기념행사'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수여하는 국민훈장목련장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윤씨는 시집은 이후부터 넉넉하지 못한 가정형편에도 불구하고, 100세가 넘은 시어머니를 사랑 당시까지 50여 년간 지극한 정성으로 봉양한 효부로서 경로효친 사상을 일깨우는 데 본보기가 됐다.

뿐만 아니라 2008년 위암판정을 받고 수술하여 몸이 불편한 남편을 사랑과 희생으로 돌보며, 슬하의 3형제에게 부부 사랑을 품소 보여주어 자녀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토록 한 노력을 높이 평가받았다.

효부(孝婦)로서 그동안의 공적을 묻자 그는 "시어머니도 똑같은 부모

님이다. 자식된 도리로서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한사코 손사래를 친다.

윤씨는 영도구 동삼동 아치에서 출생하여 20살 때 지금의 남편(김정봉·76)을 만나 가정을 이뤘다. 가난한 시절, 윤씨의 시댁 역시 너무나 가진 것 없는 초가집 살림이었다.

당시 환갑을 맞은 홀시어머니와 외동 남편, 그리고 7명의 시누이 중 출가하지 않은 3명의 시누이와 함께 살림을 꾸려갔다. 어렵고 낯선 환경이지만 무조건 숙명이라 여기고 겸허하게 받아들였다고 한다.

윤씨는 시어머니와 50여 년을 함께하는 동안 전어머니와 딸처럼 지냈기에 고부갈등은 크게 느껴지지 않았다고 말한다. 고령의 시어머니가 가끔 정신을 놓고 엉뚱한 행동을 보일 때도,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위



국민훈장목련장을 받은 윤학남씨가 효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기를 넘겼다는 그의 목소리에 공경의 힘이 실려 있다. 가장 잊을 수 없는 일은 딸의 집에 간 어머니가 길을 잃었을 때라고 한다.

다행히 가슴에 단 명찰 때문에 몇 시간 만에 찾았지만 지금도 그 때만

생각하면 가슴을 쓸어내린다. 취재진이 근래 효의 의미가 퇴색하는 것을 우려하자 "요즘 젊은이들은 현명하다. 서로의 갈등 해결 방법까지도 잘 알고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오히려 유쾌하고 있는 '시(媳)월드'에 일침을 가했다.

윤씨는 효부가 되는 비결이 따로 있지 않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 편하게 해 드리는 일이다. 자신이 먼저 이해하고 양보하며 참으면 된다"고 요약했다. 아울러 그는 이 모든 것이 남편과 아들의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겸손히 말했다.

그리고 보니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야말로 고생(苦生)이 아닌 고생(高生)의 삶이라는 것을 윤씨를 통해 재확인한 셈이다.

윤학남씨가 받은 국민훈장은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의 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정부가 수여하는 훈장이다.

김정화 기자

■yo콘서트 기획하고 있는 대학생총연합회 임원들

‘부산의 흥대’를 꿈꾸다

부산에서 대학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곳이 남구다. 그만큼 남구가 생활환경이나 교육환경에 최적이라는 입증이다. 그런 의미에서 부산 남구 대학생총연합회가 뜻을 뒀다.

지난해 (사)국제평화기념사업회(이사장 김정훈)는 부산 남구 대학로에서 '제1회 U평화대축전' 행사를 개최했다. '제1회 U평화대축전'은 남구의 '유엔평화문화특구' 지정을 기념하고 평화의 중요성을 세계에 알리는 한편 부산을 세계적인 평화의 상징도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그것을 계기로 대학생총연합회가 'yo콘서트'를 탄

매주 5개 대학팀 거리공연

예술장터 아트마켓 등도 기획

생시켰다.

'~003' 할 때 'yo'가 'yo'다. 가령 '있어요, 예뻐요, 했어요.'할 때 그 'yo'다. 문장 끝에서나 두루 붙을 수 있는 특이한 보조사인 'yo(yo)'를 쓴 것도 기발한 젊은이들다운 발상이다.

남구 대학생총연합회 대표회장 구자영(부경대 건설공학부 졸)이 주축이 되어 움직이고 있다.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두루 갖춘 남구 대학로 거리를 서울의 흥대 앞과 문화적 차이를 없애자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대학로 거리가 활성화되면 지



국제평화기념사업회와 남구 대학생총연합회는 매주 금요일 yo 콘서트를 열고 있다.

역상권 활성화는 당연한 결과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KT남구지점 뒷배에 그림을 그리고 덧칠했다. 정동규(경성대, 부회장), 김상균(부경대, 부회장), 황원호(부경대, 집행위원장), 강기원(부산대, 방

송국장) 이준명(부산예술대, 홍보국장) 등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거리 공연을 통한 문화 알림, 형편이 어려운 학생 후원, 벽화 사업 등, 보이지 않은 곳에서 봉사하고 있다.

'yo콘서트'는 매주 금요일 5~7시, 부경대 앞 거리공연장에서 진행해왔다. 앞으로 샌쥬리빌딩 뒤편으로 옮겨 차로를 막고 공연할 예정이다. 그 첫 무대로 지난 18일 젊은이의 축제 기간 중 '대학로 거리공연'을 펼쳤다.

공연은 남구 각 대학 동아리에서 갖고 닦은 기량을 거리에서 보여준다. 청아한 트럼펫과 바이올린과의 만남 라이브 밴드, 열광의 도가니 락밴드를 연주하는 늘 그늘이 진 마음에 상큼한 5월의 햇빛과 싱그러운 바람이 들게 한다. 호소력 있는 화음을 듣고 있으면 젊은이들의 노력이 얼마인지 가능하게도 된다.

매끄럽게 진행되는 사회자 김수진(대학생연합회 회장·부산예술대 졸)씨는 특유의 유머와 순발력으로 군중을 사로잡는다. 사이사이 나누주는 지역 상품권은 덤이다.

창작예술품을 작가가 직접 만들어 파는 것으로 열려 있는 예술 장터라 할 수 있는 아트마켓. 기발한 아이디어를 뽐내는 물건들이 수도룩하다. 진기한 작품들이 울랑울랑 진열된 아트마켓을 구경하며 사는 재미도 솔솔하다.

그들의 열정적인 노력으로 남구 대학로 거리가 부산의 대표적인 젊음의 거리로 거듭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yo(yo) 카드 발급은 www.namgu-
yo.co.kr에 접속하면 된다.

박승숙 기자

“방값 싸서 너무 좋아요”

햇살동지(남강대주택)에 입주한 대학생 유지웅·구영희 씨

얼마전 전국 최초로 문을 연 반값 임대주택 햇살동지를 찾았다. 세입자가 입주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고서다. 용당동 동명대 맞은편 주택가에 위치한 햇살동지에는 4명의 대학생이 동지를 찾았다.

백석진(경성대 2)·유지웅(동명대 2)·배지은(부경대 1)·구영희(부산대 3)씨 등이 바로 그들이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유지웅·구영희씨가 환한 미소로 인사한다.

전남 광양이 고향이라는 유지웅(23)씨는 “방값이 주변시세의 절반이어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부모님도 깨끗하고 월세가 적은 햇살동지에 입주한 것에 만족한다”

가족과 함께하는 순체형 프로그램

- 일시 : 6. 16. (토), 6/30(토), 7/7(토)
- 장소 : 이기대 어울마당 주변(정점 : 이기대 일구 주차장 내 관리사무소 앞)
- 신청자격 : 남구 주민이면 누구나 (서구, 수영구 주민도 참여 가능)
- 인원 : 매회당 30명 (15가족·학생 1인 + 학부모 1인) * 신청순 마감
- 신청기간 : 5. 25. (금)~6. 12. (화)
- 신청방법 : 유선, 팩스, 홈페이지(http://edu.bsnamgu.go.kr) 신청 가능
- 참가비 : 무료
- 문의 : 총무과 평생학습담당부서 ☎607-6376, 4515



전국 최초 반값임대주택 햇살동지에 입주한 4명의 학생 중 유지웅·구영희 씨가 집 앞에서 즐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

고 밝혔다.

유씨는 또 “오랫동안 가족사생활을 하다가 학교와 5분 거리에 있는 넓은 방을 갖게 돼 학업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자랑했다.

부산외대에서 포트투걸이를 배우고 있는 구영희씨 역시 햇살동지에 입주한 것에 만족해 했다. 무엇보다 깨끗하고 위생적인 시설이 맘에 든다고. 구씨는 동료 학생들과 입주하게 되면서 교류관계도 넓히고 정보도 공유할 수 있는 점도 햇살동지만의 매력이라고 말했다.

임대인 선속선씨도 빠른 시일 내에 입주학생들과 마당에서 삼겹살 파티를 마련하겠다고 거듭었다. 백석진·배지은 학생은 수업 등 개인사정으로 만날 수가 없었다.

성소병원 박희두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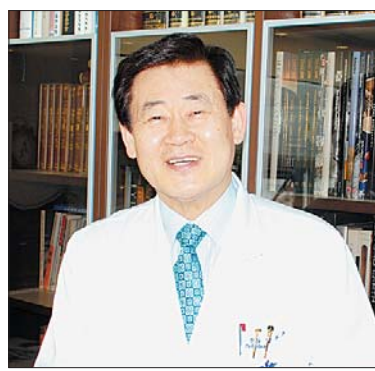
국제와이즈멘 한국지역 총재 취임

박희두 성소병원장<사진>이 지난 21일 오후 4시 부산 호텔농심 대강홀에서 국제와이즈멘 한국지역 총재로 취임했다.

박 총재는 취임과 함께 지역실정에 맞는 봉사활동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국제와이즈멘이 라이온스클럽과 로타리클럽 등과 같은 국제봉사단체지만 가장 먼저 지역봉사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발굴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혁신과 열정 그리고 행동으로’라는 모토를 정해 보다 적극적인 봉사활동으로 신나게 와이즈멘 활동을 하지는 의지를 오늘 밝혔습니다”

박 총재가 이번에 총재로 취임한 국제와이즈멘은 기독교 정신에 바탕을 두고 1922년 미국에서 태동된 국제봉사단체다. 한국에서 와이즈멘은 해방 직후인 지난 48년 출범한 부산 임파클럽에서 시작했다. 현재 부산의 15개 클럽을 비롯해 234개 클럽과 1만여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한끼 굶기를 통해 모은 금식기금으로 국제난민 돕기에 나서는 한편 장학사업과 청소년 교한교육, 폭력거부 운동 등을 펼치고 있다

박 총재는 “국제와이즈멘 한국지역에서 봉사할 젊은이들을 참여시켜 보다 많은 봉사활동을 벌이는 한편 여성와이즈멘들의 리더십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희두 총재는 그랜드터스 이사장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제53회 사법고시 최종 합격

대연5동 안 영 주 씨

용호1동 박 지 연 씨

우암1동 남 수 경 씨



용호1동 박지연 씨 우암1동 남수경 씨

법무부가 지난달 발표한 제53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명단에 남구 출신 여성 3명이 이름을 올렸다. 대연5동 안영주(28)·용호1동 박지연(26)·우암1동 남수경(27)씨가 바로 그 주인공들이다.

안영주씨는 용호동 예문여고와 서울대 사범대 역사교육학과를 올해 졸업한 인재로 사법고시를 준비한지 2년 만에 합격했다. 한법재판관이 되는 게 그의 꿈이다. 박지연씨는

해운대여중과 해운대여고 출신이며 고려대 법학과 4학년에 재학하면서 합격의 기쁨을 맛봤다. 남수경씨는 석포여중과 문현여고를 거쳐 부산대 법대를 졸업했다. 검사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힌 그는 2번의 시련을 딛고 3번의 도전 끝에 합격의 영광을 차지했다.

한글컴퓨터에 민원24

www.minwon.go.kr

오시느라 힘드셨죠!
앞으로는 집에서
「민원24」로 처리하세요.

24시간 열려있는 온라인 민원망

민원 24
minwon.go.kr

동해 참가자미 **빛** 집

대표 : 김성희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2동 1756-20번지

단체회원 ☎633-0151

참가자미회	특대 : 100,000 / 대 : 80,000
	중 : 60,000 / 소 : 50,000
모듬회	특대 : 100,000 / 대 : 80,000
	중 : 60,000 / 소 : 40,000
정심특선	선 : 13,000
생우력	탕 : 10,000
당밥	밥 : 8,000
가자미물회	회 : 12,000

〈문헌대항〉 신음 경성대방향
아이마트 생생대방향 LG중점소
두하늬(가자미)로진
롯데슈퍼 동영아이티온아이마트

웃어요! 웃어봐요 (웃음·유머교실) 회원모집

웃음박사 조성영

웃음박사 조성영과 함께하는 부산예술회관 웃음·유머 회원 모집

- 개강 : 2012년 6월5일(화)
-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12시10분
- 선착순 200명 특별수강료(2개월 : 3만원)
- 장소 : 부산예술회관 1층 대공연장(교동방송국 옆)

조성영 웃음연구소 웃음만 회원 모집

- 매주(월) 오전반 10시30분~12시
- 매주(월) 저녁반 오후 7시~8시30분
- (★웃음으로 동안얼굴 만들기)

웃음치료사 1급, 유머해법지도사 1급 자격증 취득가능

- TBN 교토방송(94.9MHz) <웃어요! 웃어봐요> 생방송 출연 -

조성영 웃음연구소 : 010-4567-2233 (부경대 대연캠퍼스 정문 앞 4층)
(카페명 : 한국웃음치료연구협회 : http://cafe.daum.net/johahahoho)

윌리스 **윙** 병원

중풍·치매·파킨슨병 두통·어지럼·이명클리닉 개소

신경과 / 내과 / 안과 / 피부과
재활의학과 / 정형외과 / 한방과

남구청 입구, 못골전철역 도보 2분 **요양병동 운영**

Tel. 638-7575 www.willishospital.co.kr

고객을 왕자처럼 모십니다.

왕자익스프레스

언제 어디서든 119같은 이사를 원하시는 분은 저희 업체를 선택해 보십시오.
장거리 운반시에도 책임자가 도착까지 책임을 다해 모십니다.

포장이사 **일반사무실이사**

중량물 취급 숙련자 항시 대기!

문의 : H.P 010-9575-2245 Tel 611-3000, 633-1212

아모레 퍼시픽 **헤라·설화수** 주부사원 모집

재미있게 같이 일해요!!!!

- 급여와 의료비, 경조비, 교육비 등 지원
- 육아 보조금 지원
- 10시 출근, 일·공휴일 휴무
- 기타 다양한 지원혜택

헤라·설화수 판매·상담 ☎ 627-2225

친절상담 → 최경숙 부장

주.야 직통상담 : 011-579-1122

아모레 퍼시픽 **남부오름지점 T.627-2225**

단전호흡, 기체조, 명상 **국선도**

우리의 몸이 **국선도**를 필요로 할 때

- 항상 초조하고, 불안하며 화를 자주 낸다
- 불면증으로 항상 수면이 부족하다
- 각 관절통증, 특히 목, 허리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다.
- 온 몸이 빠근하고, 살이 찌는 것 같다
-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다
- 학생의 경우 학습능력이 떨어진다
- 당뇨 초기증상으로 치료를 하고 있다

오전 7:00~8:20, 10:30~11:50
오후 6:00~7:20, 7:30~8:50

국선도 대연수련원 ☎ 612-9393
(대연5동 기아자동차 옆)